

지자체 주도... 예산·실행계획 등 알맹이 빠져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정책’ 밑그림 살펴보니

백화점식 나열... 정부 조정역할 그칠수도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18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은 향후 5년간 추진될 지역발전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체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말뿐인 계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은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크게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17개 과제를 6대 분야별로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분야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 체감 생활환경 개선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분야는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 전환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 4개 과제가 올라왔다.

또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특성화 ▲지역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등 3개 과제가 선택됐다.

‘지역문화 육성, 생태 복원’ 분야는 ▲지역문화 육성, 생태 복원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연환경 보존 활용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 밖에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분야는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 2개 과제가,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분야는 ▲혁신도시·세종시 보완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들 정책은 정부 주도나 지자체단체가 직접 기획·집행 등 전분야에 걸쳐 사업을 주도하는 게 특징이다.

반면, 지역 전문가들은 이 정책에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신, 재정 부담이 없는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발표에는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빠져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예산 규모를 모르는데 ‘계획만 세워라’고 하는 것은 지역발전이라는 공을 지역으로 떠넘긴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결국 각 지자체가 발급한 지역사업을 심사를 통해 예산을 쪼개 나눠주겠다는 식인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을 정

부가 기준을 만들어 선별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경제성 논리가 개입하게 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역발전위는 오는 8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오광림기자 kroh@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속 인프라·문화·복지 충족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위 도입 ‘지역행복생활권’이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지역발전위는 지난 4월1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 지역발전정책 방향 수립 TF를 구성한 뒤 지자체와 지역발전연구원, 관계부처, 지역위 위촉위원, 시도경제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개념을 만들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곳으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게 지역발전위 측의 설명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해 중심도시와 농어촌 중심지, 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한 뒤 권역을 설정, 도시의 편리성과 농어촌의 쾌적성을 결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준에 정부가 광역단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개 시도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 뒤 거점대학 육성이나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광역경제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역발전위의 설명이다.

지역발전위는 지역별 인구 분포나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지역

행복생활권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이러한 절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역감정을 조정하고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박 대통령의 지역발전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세종시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률적 개발이나 시혜적 정부의 보조만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 SOC 등 기존 프로젝트 그대로 간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중의 하나인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은 18일 “정부에서 추진해온 SOC(사회간접자본) 등 기존 프로젝트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차 회의를 마친 뒤 춘추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정책의 일관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과거 주요

정책은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행복 체감을 위해 지역을 묶어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을 촉진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나 혁신도시 정주여건 미비에 대해 “과거 정책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 교육, 각종 교육시설 등 모든 것을 조속히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기관 이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남도 신임 실·국장 프로필

친화력 좋은 대표적 기획통

주동식 의회사무처장 도청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낙천적이면서도 강한 추진력이 장점이다. 전남도의 최대 국제대회인 F1 대회의 기틀을 잡았다. ▲여수(52) ▲한양대, 서울대행정대학원 ▲기획관, 비서실장



경제·정책기획 경험 풍부

배택휴 투자국장 경제·정책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통일부를 거치는 등 젊은 나이에 비해 경험이 풍부한 것이 장점. ▲순천(43) ▲전남대 행정학과 ▲정책기획관, 경제통상과장



비서실장 역임 소통 창구

정순주 경제국장 도청 내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평. 젊은 직임과도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발한 성격도 큰 장점이다. ▲나주(54) ▲전남대 농학과 ▲생물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신성정동력과장



소통·화합으로 업무 추진

명창환 안행국장 전남도의 핵심 사업인 친환경 농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식품 유통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화합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는 평가. ▲고흥(45) ▲전남대 행정학과 ▲도립도서관 개관준비단장



온화한 성격 일처리 철두철미

오광록 건설국장 온화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일 추진에 빈틈이 없다는 평.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추진하는 등 업무에 대한 욕심도 많다. ▲해남(58) ▲방통대 농학과 ▲전남개발공사 파견 근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주역

민상기 비서실장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이끌었다. 인맥이 넓고, 의회 경험이 풍부하다. ▲화순(57) ▲단국대 행정학과 ▲여수엑스포조직위 ▲도의회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인맥 두터운 ‘시 쓰는 공무원’

고성혁 대변인 ‘시 쓰는 공무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폭넓은 인맥에 신망도 두터워 무리 없이 홍보 업무를 소화해내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신안(57) ▲방통대 행정학과 ▲인력관리과장 ▲관광정책과장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초대원장 정도영씨

(재)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정도영(62)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전남도는 19일자로 정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정 원장은 이란의 전 환경부장관(전남도 환경정책보좌관)의 추천으로 2차 공모에 응모해 환경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아 임명장을 받게



됐다. 충북 영동출신인 정 원장은 1994년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기물자원국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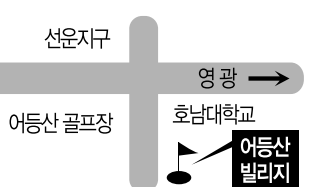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종얼얼한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30억 외 다수
- ▶월산동 대로변 6층건물 매14.5억(보.2.8%)월810만
-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운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5억 최저가3억5천만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정및창고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10억3천만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례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